

◆ New Zealand Libraries: Its Past and Present

뉴우-지일란드의 圖書館 狀況

李 承 周
(國立中央圖書館)

뉴우-지일란드 圖書館史는 120餘年으로 1840年 英國의 植民과 더불어 始作된다. 當時 英國은 世界의 最強國으로 世界를 制覇하고 또한 最高의 文明을 維持하고 있었다. 그들이 故國을 떠날 때 아무리 英國의 國力이 世界에 뻗히며 유니온 잭 기빨을 나쁘진다는 希望과 意氣에 찾다 하더라도 前人未踏의 太平洋 南端의 未開의 섬을 찾아 간다는 것은 그렇게 容易한 일도 아니오 希望찬 일만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開發을 기다리는 廣莫한 大地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本國에서 높은 文明生活를 누리는데 그들에게 設使 政府의 莫大한 行政 및 財政支援이 있었더라도 당장 그들이 살아야 할 基本的 衣食住問題는 勿論 文化需要까지도 함께 隨伴하지 않을 수 없었다. 故國의 이웃들은 그들에게 激勵과 선물을 주었고 그중엔 勿論 大英百科辭典을 비롯, 宗教, 文學등에 이르는 書籍이 들어 있었다. 더우기 移住한 뒤 그곳에 印刷所는 勿論 出版業이 있었든 것도 아니오 모두 本國에서 갖어와야 하고 故國으로 부터의 書信과 書籍들은 數千萬里 隔한 그들에게는 故國의 消息이 唯一의 慰安이기 때문에 書籍은 그들에게 있어 갈증나도록 必要하고 重要한 生活의 一部이었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圖書館 發展에 있어 核心의인 背景을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1840년에 Athenaeums and mechanics Institute는 各層의 移住者들에게 읽을 冊을 提供해 주며, Wellington에는 圖書館의 設立을 보게 되며, 1841年엔 Auckland, 1859年엔 Christchurch와 Dunedin等 移住者의 增加와 擴散에 따라 圖書館은 各 市邑에 設置하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 10年後인 1869年엔 이 나라 最初의 Public Library Act가 Mr. Maurice O'Rorke(後에 Sir)에 依하여 議會를 通過하고 이 法은 各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設置權을 주고 또 公共圖書館은 無料入館이어야 한다는 것과 地方自治團體는 圖書館稅를 住民들로부터 1페니 限度에서 徵收할 수 있도록 하는 것(1938年엔 2페니, 1946年엔 3페니로 引上)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法 公布後 即刻의으로 圖書館의 設

置에 있어 效果를 올리지 못하였으며 1850年의 英國의 自由開放精神에 立脚한 圖書館法을 따른 無料入館도 失敗는 하였지만 後의 오랜동안의 有料圖書館에 많은 制限과 影響을 주었다. 또 10年後인 1879年의 Auckland 市議會가 그곳의 Mechanic's Institute 圖書館을 接受 Auckland Public Library를 設置한 것이 이 圖書館法에 依한 最初의 圖書館이다. 그後 各地方은 이에 따라 많은 圖書館의 新設과 改編이 따르게 되고 實質的 內容과 運營의 充實이 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各道(Province)의 道議會에 依하여 支給되던 圖書館補助金은 1876년에 道制의 廢止로 依의 對策으로서 1877年엔 公共圖書館補助金法(The Public Libraries Subsidies Act)의 公布로 公共圖書館運營 補助에 관한 것은 中央政府의 任務로 돌아오게 되고 National base의 政策基礎를 갖게 된다. 政府 補助內容은 現金과 冊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930년까지 繼續된다. 그런데 이 公共圖書館補助金法은 當時 海外에서의 有料入館制에 맞추어서 年間 5실링 以下의 入館料 納付者에게는 公共圖書館의 入館을 不許하는 것을 特別히 規定하였다. 19世紀末에 가서 Andrew Carnegie의 世界 各地의 圖書館 設置計劃에 따른 圖書館 建築事業은 이 나라에 한 자극을 주었다. Carnegie는 우리가 알다시피 英國人으로 美國에 건너간 後 鐵鋼業으로 큰 돈을 벌며 特히 모든 英語使用國에 대하여 많은 文化事業에 援助하여 왔고 圖書館設置는 그 一環이다. 그들의 圖書館設置條件은 自由롭게 一般이 使用할 수 있는 Free Service였다. 이와 같은 條件에도 不拘하고 뉴우-지일란드에 세워진 18個의 圖書館中 Free Service를 한 곳은 3~4個에 不過하였다. 이렇게 해서 活氣를 얻은 뉴우-지일란드의 圖書館界도 1930년에 이르러서는 當時 美國을 爲始해서 全世界에 不景氣를 招來시킨 經濟恐慌때문에 政府의 圖書館補助金法에 依한 補助도 中斷되고 또 많은 小圖書館과 財政이 弱한 私立圖書館들은 門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에 있어 景氣回復이 생기를 찾게 되자 困境에 빠진 뉴우-지일란드의 圖書館의 發展과 奉仕의 向上을 위하여 뉴욕에 있는 Carnegie Corporation은 Pittsburgh의

Carnegie 圖書館長 Ralph Munn과 Auckland Public Library 圖書館長인 John Barr로 하여금 이 나라 最初의 圖書館界에 관한 Survey report를 作成하는데 財政을 提供하였으며 이 Munn-Barr Report는 뉴우-지일란드의 圖書館史上 特出한 文獻으로서 남게된다. 이 報告書는 뉴우-지일란드의 圖書館이 안고 있는 諸缺陷을 克服하는 內容과 段階를 提示하고 있다. 이 Survey report는 運營面에서 reference 및 lending department와 어린이에 대한 奉仕 및 新聞室의 設置 그리고 모든 公共圖書館의 無料入館, 地方의 圖書館들을 위하여 國家는 巨大한 貸出 Collection을 準備하고 圖書館 當事者들은 專門教育을 받으며 強力한 圖書館協會에 의하여 圖書館 發展이 先導되어야 한다는 골자들이다. 이 report의 影響은 대단히 컸다.

뉴우-지일란드圖書館協會는 1910년에 이 나라 四大都市의 하나인 南島南端에 자리잡은 Dunedin에서 열린 圖書館大會에서 The Librar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란 이름으로 出發하였다. 이 報告書의 勸告에 의하여 1935년에 그 定款을 改正, 團體會員과 더불어 個人會員이 追加되어 全圖書館人의 參與를 期하고 名稱도 The New Zealand Library Association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38년에는 The Country Library Service가 設置되어 各地方의 公共圖書館 活動을 全的으로 支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45년에 National Library Service란 獨立機構로 되었다. 1966년엔 國立圖書館의 設置에 따라서 圖書館支援局의 한 部로서 改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29년 以後 中斷됐던 政府의 圖書館補助金은 이 Country Library Service의 活動에 의하여 圖書를 사서 주는 것으로 代置하게 되었다.

카네기재단과 Munn-Barr report가 指摘한 無料入館도 오랫동안 내려온 英國의 有料入館制度의 傳統 때문에 實效가 뚜렷하지 않더니 이 Country library Service가 活動하고 부터는 公共圖書館은 많은 樣相을 달리하기 始作했고 內容도 充實을 期하기 始作했다. 自由開放은 카네기재단이 設立한 Dunedin Public Library가 1908年, Timaru Public Library의 1909年을 矯失로 하여 Auckland 1946年, Palmerston North와 Lower Hutt가 1947年, 1950年代에 Wellington, Christchurch, Gisborne, Wanganui, New Plymouth 등이 Free Service System으로의 轉換을 急速히 이루어져 갔으며 1950년에는 The National Library Service(뉴우-지일란드 國立圖書館의 前身)의 年次報告書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提示하여 公共圖書館奉仕의 對社會的 價値를 確認하였고 1951년엔 圖書館協會는 Free and rental service 원칙을 채택 各 公共圖書館과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勸

告하였으며 이것이 오늘 날의 一般의 形態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圖書館의 奉仕는 1935년부터이며 이는 各 公共圖書館과의 關連속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위한 예산은 地方豫算에서 뿐만 아니라 中央政府가 이를 強力히 補助하고 있다. 1942年 School Library Service가 생긴 以後 國民學校 및 中高等學校圖書館도 急激한 變化와 發展을 보았고 學校 및 學校教育에 있어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Munn-Barr Report 以後 New Zealand의 圖書館界는 이에 따라서 覺醒과 方向을 찾아 완만 하나나 發展하여 가다 第二次 世界大戰 동안 모든것은 주춤하다 1945年 大戰이 끝나고 부터는 다시 이에 따라 活氣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特히 1938년에 設置된 Country library Service의 各 公共圖書館에 대한 援助와 指導는 圖書館界에 活氣를 자아내고 오늘 날의 New Zealand 圖書館界의 기틀을 잡는데 광복할 寄與를 하였다. 한편 國家의 圖書館政策에 차츰 體系를 잡어 가고 關心과 介入은 增大하여 갔다. 即 1945년의 The National Library Service의 創設이다. 이는 The Country Library Service를 그 안에 吸收하고 그 안에 National Library Center와 Library School을 擁하게 되었다. 이것은 實質的으로 New Zealand에 國立圖書館 機能의 始發을 意味하며 이는 現 國立圖書館의 前身이다. New Zealand에는 1856년부터 最初의 國立圖書館으로 國會圖書館이 存續하여 왔고 그 장서 또한 充實한 圖書館이었으며 New Zealand의 著作權納本 圖書館이었다. 또 두번째의 國立의 圖書館은 Alexander Turuball Library로 New Zealand 首都인 Wellington의 돈 많은 商人의 아들인 Alexander Horshurgh Turnbull이 25年間에 걸쳐 모아온 45,000여권의 冊과 많은 古書 및 古文書를 간직한 當時까지 이 나라 最大의 圖書館을 1918年 그가 죽을때 “Nucleus of a New Zealand National collection”으로 써달라는 遺言으로 國家에 歸屬된 圖書館으로 우리 나라 奎章閣圖書에 비유하는 重要한 古典들로 차 있는 文化財級的 圖書館이다. The National Library Service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세번째의 國立圖書館이다. 勿論 이외에도 여러개의 充實한 政府部處圖書館이 있었지만 이들은 各部處에 의하여 設立되고 Control된 것들이다. 이때부터 國家的으로 이 3개의 國立圖書館의 合理的이며 協同的 機能과 서비스의 必要性을 오랫동안 切感하게 되었으며 圖書館協會의 끈질긴 설득과 努力으로 1958년엔 國會의 特別委員會는 이를 確認하고 1963년엔 위의 3개의 圖書館을 聯合한 單一의 새로운 國立圖書館 設置에 관한 決定을 發表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4년엔 G.T. Alley

氏が 이 나라 最初の 國立圖書館長으로 任命되고 1968 年까지 新設된 國立圖書館의 지표를 잡는데 큰 貢獻을 하였으며 그後 H. Macaskill氏가 第二代 館長으로 就任 今年이 그의 停年 滿期이다.

그런데 New Zealand 圖書館을 理解함에 있어 重要的 것은 世界的으로 有名한 圖書館人이요 學者인 A.D. Osborn의 作成한 1960年의 “New Zealand Library Resources”란 그의 New Zealand 圖書館에 대한 Survey 報告書이다. 그는 當時 濠洲의 Sydney大學校의 Fisher Library의 館長으로 있을때의 것으로 이는 New Zealand 圖書館史上 前記의 Munn-Barr Report 와 함께 重要的 二大文獻의 하나이다. 그의 Survey 報告書는 大略 Munn-Barr Report의 大旨와 같으나 Munn-Barr report는 近代的 圖書館觀에 立脚했다면 이는 現代的 圖書館觀에 立脚 하였다는 것으로 前者가 Library Service를 社會的, 文化的, 側面에서 強調 한데 對하여 그는 Information의 側面에서 New Zealand 圖書館들을 Survey하였다. 勿論 이 報告書는 世 國立圖書館法의 採擇에 權威의 拘束을 하였음은 不인 할 必要가 없다. 이것은 New Zealand 圖書館界 100 年을 記念하는 Survey로 New Zealand 圖書館協會의 招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以上은 New Zealand 圖書館界가 밝아온 一般的인 概 要이다. 그러면 오늘 날 New Zealand 圖書館界의 平面 的狀況과 그 問題點은 무엇인가? 多幸히 筆者가 그곳에 있는 동안 1971年과 1972年의 圖書館協會 總會에 參席할 수가 있었으며 그것들은 大會主題內容에 잘 나타나 있었고 이에 臨하는 500여명 되는 圖書館人의 眞摯하고도 끈질긴 姿勢에 많은 感動을 받았다. 여기 1971年 2月 8일부터 11일까지 4日間 Palmerston north에서 열린 內容을 적으면 每日 午前 9時부터 午後 9時까지 繼續되는 會議에 빠지는 사람 하나 없이 1分의 소비도 없이 大會 스케줄대로 운영되는데 二日豫定을 단 하루로 短縮시키는 우리 나라 圖書館大會와 놀라운 比較가 되고 더우기 午前會議엔 參席했다 午後會議엔 會場의 座席 半이 텅비는 光景을 想起할 때 속으로 저유히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까지 들었다. 討議主題들은 發表가 主가 아니라 Seminar形式으로 한 主題를 가지고 滿 3時間씩의 進지하고도 신랄한 討議形式 이었다. 討議에 는 主題發表者 4명과 1名の 司會者로 대개 참여져 있었다. 여기 그 主題들을 들으면

1. 公共圖書館을 위한 參考圖書館
2.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3. E.D.P.S.의 圖書館活用問題
4. 國立圖書館의 將來
5. 新人이 보는 既成圖書館人
6. 學校司書의 地位
7. 圖書館의 產業分野 奉仕
8. 古典保存과 製本
9. 特殊圖書館의 當面問題
10. 族譜의 參考業務上 問題點
11. 大學圖書館의 收書政策
12. 公共圖書館에 대한 國家援助
13. 地方行政當局과 圖書館長과의 關係
14. Massy大學校 圖書館 利用者 調査分析이 주는 問題點

15. 圖書館協會의 職業團體로서의 變化하는 役割 등의 15個 主題에 걸친 것이었다. 여기 보이는 바와같이 圖書館에 관한 多角的인 面에서 問題意識을 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緊迫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圖書館 業務의 Computerize에 관한 것이 었다. 筆者가 있을 때 이 나라의 Digital Computer數는 200臺가 政府機關 및 企業體에서 稼動하고 있었고 Ana Computer는 여러 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었다. Digital Computer는 當時 D.S.I.R圖書館만이 數年前에 設置 稼動되고 있었고 거의 모든 圖書館이 計劃段階 또는 發注中에 있었는데 Dunedin의 Canterbury大學엔 IBM 1440을 비롯 해 Victoria大學, Massy大學, Auckland大學이 들어와 稼動中이란 消息이다. 圖書館의 產業에 대한 奉仕로 1970년부터 Auckland Public Library에서 Telex施設을 해 놓고 迅速한 情報서비스를 始作하고 부터는 四大都市인 Wellington Chrsitchurch, Dunedin도 이에 따를 氣勢였다. 한가지 New Zealand 圖書館人의 10餘 年來의 간절한 所願은 國立圖書館 建物の 新築問題였다. 筆者가 그곳에 갔을 때 建物の 設計를 完了 圖書館 大會에 展示 全圖書館人의 意見을 묻고 있었다. 現在 New Zealand의 國立圖書館은 Wellington市內 16個處에 散在해 있어 그 機能 發揮는 勿論 公共圖書館 大學 圖書館의 컴퓨터 러쉬에 束手無策으로 기다릴수 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圖書館이 또 自動化와 機械化 되어감에 따라 司書教育 問題로 그 質을 높일 뿐만 아니라 教育內容도 數年來에 變化를 갖어 오고 있으며 教育制度自體의 根本的 改革이 來年부터는 實施되지 않을까 期待 된다.

救國의 維新이다 새 歷史를 創造하자.